

# ‘文 케어’ 여파 건강보험 적자… 건보 곳간 ‘빨간불’?

작년 지출 62.3조… 1778억 적자  
7년 연속 흑자행진서 당기적자로  
건보 적용 확대… 적자 이어질 듯  
누적적립금 2022년 9조 감소 전망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당기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영향이 커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과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등을 포함해 총 62조115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요양급여비를 포함한 총 지출이 62조2937억원을 기록하며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조5955억원이다.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는 시작일 뿐,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면 앞으로도 적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다.

실제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한해 급여화한데 이어 올해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는 복부·흉부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초음파는 올해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도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는 특히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춘다. 화귀질환 본인은

부담 완화 대상도 기존 827개에서 92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 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이미 재정집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지기에 흑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되면 재정지출이 늘기에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어들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 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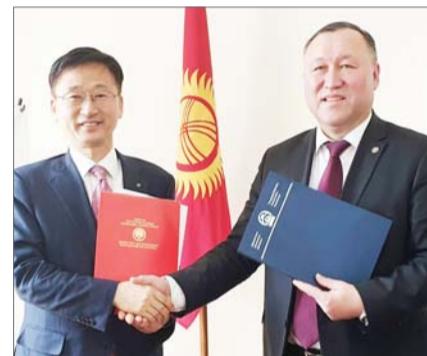
## 주금공, 亞 주택금융 발전 위한 업무협약

키르기스스탄 SMC와 교류협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청사에서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산하 국책주택금융기관인 SMC와 정책모기지 운영, 유동화 증권발행 등 주택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주금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SMC, NM C와 ▲정책모기지 상품운영·유동화증권 발행과정·유동화 기초자산 관리 등 주택금융분야 전문지식 교환 ▲세미나·컨퍼런스·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각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업무협약 체결기관과 초청연수, 기술지원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사의 경험과 주택금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키르기스스탄 SMC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편 주금공은 오는 14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산하 국책주택금융기관 NMC를 방문해 정책모기지와 유동화 증권 발행 등에 관한 업무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김희주 기자 h89@



13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육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창업교육부 이해진 부장, 육군 인사사령부 김환필 부장,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 육군 인사사령부 박동철준장, 창업진흥원 창업촉진본부 이채영 부장.

## 육군장병 軍 복무하면서 창업 꿈 키운다

창업진흥원-육군인사사령부 MOU

육군 장병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업진흥원은 육군인사사령부와 장병들에게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일 충남 대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 장병들은 군복무 기간 중 창업진흥원의 창업교육 사이트 ‘창업 예滁’를 통해 온라인 창업교육을 받고 ‘아이디어 마루’ 멘토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창진원과 육군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창업 실무 등에 관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동아리 캠프도 운영하기로 했다.

육군은 장병들의 창업동아리 활동과 창업교육 수강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창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창업에 드는 사이트를 통해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온라인 창업 교육을 하고 있고, 창업자들이 올린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건강한 K-Food, 글로벌 바이어 ‘눈도장’

aT 美·日 식품박람회 연속 참가  
대추 스낵·배즙 등 건기식 호응  
美선 150만 달러 현장 계약 성과

대추스낵, 배즙 등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만든 건강기능성 식품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눈도장을 받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aT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2019 도쿄식품박람회(Food x Japan 2019)’에 참가한 데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세계최대 규모의 자연식품박람회인 미국 ‘애너하임 내추럴프로덕트 엑스포(NPEW)’에도 참가해 한국 농식품 세일즈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도쿄식품박람회에는 80여개 수출업체가 토마토, 대추칩, 쌀떡, 들기름 등을 선보이며 총 1038건, 1억81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건강지향 원물간식’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대추스낵을 비롯해 잘라도 과즙이 흐르지 않고 저장성도 뛰어난 신선토마토, 쌀과 천연색소를 혼합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식용贻이 현지 바이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애너하임 내추럴프로덕트 엑스포에서는 20여개 수출업체가 한국관을 통해 흥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2019 도쿄식품박람회’ 한국 홍보관 모습.

/aT

삼, 쌀스낵, 차류 등을 선보였으며 신선배, 흥삼제품, 유자차, 유아용 쌀과자 등이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도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유기농, 글루텐프리 등 다양한 관련제품이 전시됐다. 이중 무가당(Sugar Free) 제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미국산에 비해 당도가 높은 한국배, 그리고 아침대용식으로 좋은 양배추즙, 배즙 등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애너하임 내추럴프로덕트 엑스포에서는 총 231건, 32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다국적기업 코스트코와는 150만 달러의 유자차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등 값진 성과도 있었다.

aT는 박람회 기간 동안 신선농식

품 유통매장 관계자와 한국산 깻잎 등 수출화대 가능성이 있는 신선농산물의 마케팅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아세안 지역을 석권하고 있는 K-베리(한국산 딸기)의 열풍을 미국시장까지 전파하기 위해 항공으로 운송되는 신선한 한국산 딸기의 맛과 품질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세계 유수의 식품박람회 트렌드는 단연 건강지향 제품”이라며 “토마토, 배, 딸기, 유자 등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적극 발굴해 한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통해 K-Food의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제주 성산포항 170톤 해양쓰레기 치운다

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환경공단(KOEM)은 이달 12일부터 약 50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 11월 성산포항 주변해역의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8.6ha 면적에 약 170여 톤의 침적쓰레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올해 제주 성산포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 2월 26일 성산포수협 어업인복지회관에서 성산포어선주협회, 오조리어촌계, 성산리어촌계 등 지역



한국해양환경공단이 12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한국해양환경공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중구청과 ‘중·장년 취업지원 ‘맞손’’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사가 위치한 울산 중구청과 지난 1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딤돌 사업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울산 희망 디딤돌 센터를 중구에 유치·운영하며 중·장년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울산 희망 디딤돌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울산 거주 은·퇴직자 240명을 대상으로 ‘은·퇴직 L:IN:K 새출발’ 사업을 진행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한국동서발전-울산중구청

중·장년 취업지원 ‘맞손’